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주일 예배 봉사위원

	05. 08	05. 15	05. 22
대 표 기 도	황희순 집사	노지민 성도	김복자 권사
성 경 봉 독	황희순 집사	노지민 성도	김복자 권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5월 축복인사 - 목표를 정하신 성도님을 격려합니다(성도 간에)

아하자(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자신에게)

1. 어린이 주일 - 미래의 주인이 될 어린이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2. 역라마단 운동 - 라마단 기간이 끝나지만, 이슬람 선교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십시오.
3. 한국방문 - 김영희 권사 가정(3일 출발)
4. 마스크 착용 - 예배시간 마스크 착용은 자율 선택입니다(5월부터).
5. 코로나 대응 - Luca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우동정

생일	노지민 성도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342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사 62 : 1 - 5(p1043) 정용현 안수집사
(Jesaja 62:1-5)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설 교 Predigt 미래를 버티는 힘! 이상호 목사
-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황희순 집사

†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4. 역라마단 기도를 통해 이슬람 형제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felix culpa(펠릭스 쿨파)

죄가 터무니 없이 자기를 기만하는 속성이 있기에 여기에 사탄의 기만 책동까지 합세하면 자신의 죄를 인지하는 일은 그만큼 더 어려워집니다. 이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신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고백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선언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선언으로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선언이 되어 죄 사함의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로 여겨지는 라틴어 어구 "펠릭스 쿨파"는 이 소망을 슬로건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 의미는 '오 경사스러운 죄여!'로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그분께 응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를 발견하는 매순간은 은혜를 받기 직전이 됩니다. 만일 자신의 죄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면 그 성도는 저 위대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주된 임무는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이는 불가능합니다-자신이 범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 故 Eugene H. Peterson 목사

*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람의 가슴을 청결케 하시면 시장도 성전처럼 깨끗해진다 - Martin Luther(독일 종교개혁가)-